



(사)한국경영·기술컨설팅협회
유민수 대외협력팀장

“나의 멘토는 누구인가?”

멘토(MENTOR)란?

‘멘토’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립형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상대에게 의욕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 팔라메데스의 시험

로마식으로는 율리시즈로 불리며

‘호머의 오딧세이’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오딧세이...

그는 이오니아 해의 작은 섬 이타카의 왕이었습니다. 트로이전쟁이 시작되자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두고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그는 전쟁참가를 피하기 위해 나귀와 황소를 쟁기에 매고 종자대신 소금을 뿌리는 등 광인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진짜로 미쳤는지를 알기위해 그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쟁기 앞에 놓자 무의식적으로 쟁기를 옆으로 비킴으로써 광인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 난 ‘팔라메데스의 시험’으로 결국 전쟁에 참가하게 되죠.

· 오딧세이의 귀환

아들 텔레마코스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한 친구에게 맡기고 전쟁에 떠난 그는 유명한 트로이목마전략을 고안함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귀향길을 나섭니다. 그렇지만 그의 귀환은 전장에서의 10년 외에도 오딧세이에게 아들을 잃은 포세이돈의 분노에 의해 수많은 시련을 거치게 됨으로써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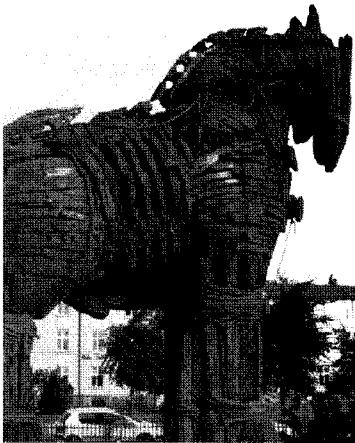
그러나 고향에서도 그의 아내 페넬로페를 차지하려는 50명의 구혼자들이 궁전을 점거하고 있어 다시 전쟁을 치른 뒤에야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2명의 충직한 하인과 오딧세이의 친구의 가르침으로 청년으로 잘 자란 아들 텔레마코스뿐이었습니다.

· 멘토(Mentor)라는 말의 기원

오딧세이의 부탁에 따라 오딧세이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의 긴 시간동안 텔레마코스의 스승이자 친구,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 잘 돌보아 주었던 오딧세이 친구의 이름은 ‘멘토’였습니다.

이후부터 멘토라는 그의 이름은 한사람의 인생에 훌륭한 스승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멘토는 누구인가?”

멘토(MENTOR)란?

‘멘토’란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발적으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립형 인재를 육성하는 사람들 일컫는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상대에게 의욕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 기업과 멘토링

기업에서도 멘토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사나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로 전담하여 구성원(멘티:Mentee)을 지도, 코치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멘토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한 여성들의 대다수도 자신의 성공요인 중 하나로 멘토링 효과를 꼽고 있습니다.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멘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가운데 나의 멘토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선뜻 떠올릴 수 없으며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것은 사회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불행이자 손실입니다.

· 나의 멘토는?

인생의 스승이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인 타이거우즈나 미셸 위, 하인스 워드 등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멘토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도서관에서 살게했던 어머니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회고합니다. 멘토라고해서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거나 특정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직접 만나서 지원을 받는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책을 통해 만난 위인이나 인물, 거의 개인적으로 만나보기 어려운 인물들도 그들을 연구하고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아내, 남편, 친구, 직장상사나 동료, 거래처 등 주변을 다시 살펴보면 거기에 나의 멘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의 멘토로 삼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일까요?